

바라밀 뜻새긴 '보시의 길' 제주에 open

사라봉 보림사에서 9km 구간, 11월 1일 개장

보시는 무엇을 바라고 남을 돕는 자만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베푸는 '이타행'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알리는 '보시의 길'이 제주에 열렸다. 배풀과 나눔 등 불교의 정신을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무명(無明)의 번뇌(煩惱)를 씻어내려는 의미다.

제주도와 제주불교신문·제주도관광협회·제주관광공사는 11월 1일 세 번째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보시의 길' 개장식을 제주 사라봉 보림사에서 개최했다.

'보시의 길'은 2012년 '지계의 길(관음정사~오라선원~월정사~관음사, 14km)', 2013년 '정진의 길(영실 존자암~남국선원~쌍계암·선덕사, 18km)'에 이은 세 번째 불교성지길로 제주도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를 시작으로 월영사~수정사지~장안사~해륜사(사자복)~보림사~월명선원~불탑사까지 총 45km에 이른다. 특히 제주 시내 유서 깊은 사찰과 중산간, 해안가 등의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개장식에서는 관광자유상품 '절로 가는 길' 출시 성공기원법회도 함께 열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불교신문과 BTN 불교TV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절로 가는 길' 제주불교순례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이날 순례에는 '자유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200여명의 관광객을 포함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새로 개장한 보시의길을 걸었다.

대원정사부터 불탑사까지 45km 관광자유상품 '절로가는길' 도 출시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 성효 스님은 "보시의 길은 자연풍광과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의 길, 유적들과 만날 수 있는 역사의 길,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길이다"라며 "앞으로 보시의 길 등 제주불교 성지순례길을 전 국민이 찾는 도보 순례



보시의 길 걷기 행사에서는 200여 관광객을 포함한 2000여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3년 정진의 길 행사 모습.

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림사에서 삼양동 불탑사까지 9km 구간에서는 개장 기념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개장 기념 걷기 행사에는 '힐링 멘토'인 헤민 스님이 지도법사로 대종을 이끌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헤민 스님을 '제주 불교 성지순례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보시의 길' 개장에 앞서 10월 31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헤민 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치유콘서트도 열렸다. '행복을 위한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마음

치유콘서트에는 400명과 사전 접수된 강연 희망자 500여 명 등 총 900명이 헤민 스님과 함께 지친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헤민 스님은 "제주도에 다양한 불교순례의 길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 연화사, 정목스님 초청 힐링 강좌

학부모들을 위한 불교 힐링 강연이 펼쳐졌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10월 25일 대웅전에서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스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일환으로 '마음을 디자인 하면 행복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불교계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정목 스님은 "미래의 부처가 될 아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담아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커다란 불성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유치원아 학부모를 포함해 4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일감 스님 '내비뒤 콘서트'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33 선지식 초청법회' 일환으로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과 오페라 가수 이한 씨를 초청해 내비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익산 정각사는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매월 33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한 씨는 성악가에서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굴곡 많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가족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자신의 노래와 함께 소개했다.

일행 스님은 "33선지식 법회는 지역불교 활성화와 부처님 법이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매일 음력 초하루에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오는 11월 22일 '붓다로 살자' 전법도량 선포식과 함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초청해 9번째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희망걷기 대회 개최

10월 26일 고교생 60명 참가... 옛길 청소하며 모금도 진행



생명을 나누기 위한 희망의 걷기가 광주에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 지)는 10월 26일 제6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대회를 무등산 둘레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무등산 정풍침터에서 원효사에 이르는 5.35km의 옛길 1구간을 청소를 하면서 환우가족을 돕는 행사다.

행사는 현지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보혜 스님(비전사), 인성 스님(관음암)을 비롯해 김진 여성후원회장 등 200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걷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는 자신의 건강과 무등산의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고, 병마에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걷기대회다"라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불교종립 광주정광고등학교 학생 60여명과 함께 옛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행사를 진행했으며,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을, 운전자불자회에서 교통안전전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부 걷기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홍보대사 활동 중인 양주호 선생이 사회로, 테너 김제선, 무용 김애경, 가수 주권기 등이 기능재부를 통해 공연을 벌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경품추첨이 진행됐으며, 1년간 재능기부를 진행한 김애경, 설영기(영광사회복지시설 난원 대표) 센터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벼베기 체험

6월 직접 심은 벼 추수... 또래들과 생명의 소중함 함께 공유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벼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3기 40여명의 학생들은 10월 25일에 전주시 삼천동 소재의 논에서 올 6월에 직접 심은 벼를 수확하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벼베기 체험은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6월에 직접 심은 벼가 자란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생명의 신비에 감탄했다. 또한 음식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많은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체득했다.

박경지 전북불교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미래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평화 정신을 함양하고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벼베기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쌀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힘들고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우리가 먹는 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 있는지 이제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은 생명·평화의 정신으로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며, 상상하는 생활습관과, 바른 역사식으로 미래 국가를 주도하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창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 칠장사, 다례재 기념 쌀·장학금 기탁

안성 칠장사가 주관하는 '해소국사(제960주기)·인목왕후(제382주기) 추모다례재'가 10월 25일 칠장사에서 열렸다.

이날 다례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법패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례·반야심경·상단 헌다 후에 나눔 장학금 및 쌀 전달식, 법어, 합동 천도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칠장사는 쌀 8000kg(2000만원 상당)을 안성시에 기탁하고 장학금 1000만원을 안성시민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날 다례재 봉행에는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해 해소국사의 청빈한 삶과 평생 동안 실천해 온 나눔의 소통을 본받아 이웃돕기 전달



식을 진행했다. 한편 칠장사는 안성 불교문화의 중심인 천년고찰로 지역 내 무료급식, 장학금, 쌀 지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완도 신흥사 '장보고 템플스테이' MOU

완도 신흥사는 전통문화와 장보고대사를 결합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보고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10월 29일 완도군과 유관단체들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군의회,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사)장보고연구원, 신흥사 등 6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장보고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여행객 모집, 역사·문화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홍상 완도교육지원청, 곽태웅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전남지부장, 마광남 (사)장보고연구원 회장,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이 참석했다. 한편, '장보고 템플스테이'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1박2일 프로그램 2개와 2박3일 프로그램으로 2개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